

애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안*

김병률 · 이명기 · 유찬희

최근 세계적으로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이 확대와 신흥시장의 곡물 수요 증가, 기상악화로 인한 단수 감소로 국제 곡물수급이 불안정하여, 2006년 후반기 이후 국제 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그 결과 최근 애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애그플레이션의 원인, 국내외 파급영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및 축산과 식품부문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1. 애그플레이션과 국제 곡물가격 동향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서 농산물 가격의 현저한 상승으로 인해 농식품으로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애그플레이션의 개념과 특징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서 농산물 가격의 현저한 상승으로 말미암아 농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도매가격)가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최근의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은 식품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곡물 및 곡물제품을 원재료로 하는 요식업, 가공업, 공업 등 관련부문에 파급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식품부문 외에 축산부문에 영향을 미쳐, 곡물을 주원료로 한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하여 축산

* 본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한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정책토론회 발표 내용을 기초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연구위원, 이명기 전문연구원, 유찬희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brkim@krei.re.kr, 02-3299-4317)

물 생산비용을 끌어올려 축산농가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육류, 달걀, 유제품 등 축산 제품에 대한 가격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 특정 국가만의 내부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애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국제곡물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재고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앵겔계수가 극히 높은 최빈 개도국에서부터 곡물수요가 급증하는 신흥개도국, 곡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선진국까지 영향을 미친다.
- (2)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다. 기후 이상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작황이 회복되면 단기간에 회복이 가능하나, 최근의 곡물가격 급등은 쉽게 변하지 않는 소비 증가 추세 심화에서 발생한 구조적 현상이다.
- (3) 곡물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과거에 지속되었던 추세에 비해 현저히 상승하여 과거 시계열추세와 일종의 단절현상이 발생하고 과거 추세로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4) 식료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반물가와 ‘장바구니물가’ 간의 격차가 심해져 정부에서 일반적인 물가안정차원을 넘어 식료품가격 안정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
- (5) 애그플레이션은 주로 해외요인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내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
- (6) 일반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농가의 작목전환이나 재배면적 증대 등으로 1~2년 사이에 해결될 수 있으나, 최근의 애그플레이션 문제는 생산, 공급 측면의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아 소비 측의 대응도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 (7) 일반적인 농산물 가격상승은 공급물량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희소성의 문제’이나, 현재의 문제는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격급등 현상이 발생하는 ‘풍요 속의 문제’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1) 세계적인 현상,
 (2) 구조적인 현상,
 (3) 과세 추세로의 복귀 지남,
 (4) 식료품 가격 안정 대책 필요,
 (5) 국내대책만으로는 한계,
 (6) 소비 측의 대응 필요,
 (7) 풍요속의 문제, 라는 특징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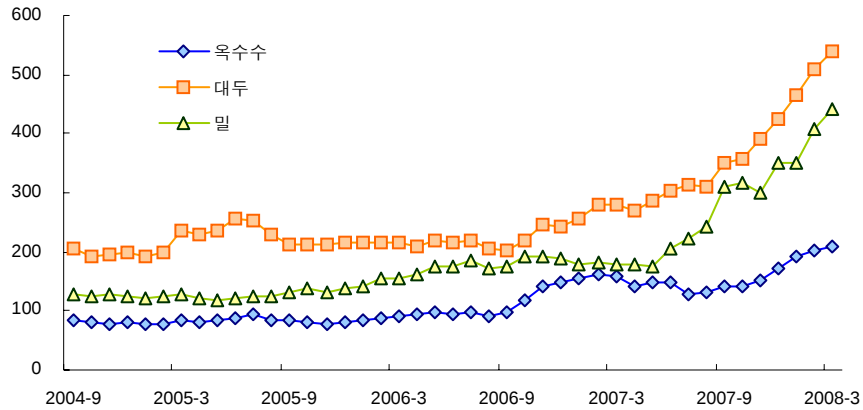
국제 곡물가격 상승

2006년 중반부터 국제 곡물가격 급등 현상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모두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3월 8일 현재 옥수수 국제 선물가격은 1년 전에 비해 30.5% 상승하였는데 이미 그 이전 1년 동안 78.5% 상승하여 2년간 132.9% 급등하였다. 대두는 1년 전에 비해 92.9%, 2년 전에 비해 151.1%나 상승하였으며, 밀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45.8%, 182.9% 급등하였다.

2006년 중반부터 국제 곡물가격 급등 현상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모두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1 국제 곡물 선물시장 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주: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대두는 Chicago 1등급 기준

자료: USDA

대두는 2005~2007년에도 가격 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었고, 2007년 이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1/4분기 동안에는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고가격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밀은 2007년 이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주요 생산국들의 수출 제한 조치 등에 의해 해당 기간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계단형’ 모습이 나타난다. 5월 수확기를 앞두고 있어 재고량이 늘어날 경우 가격이 다소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곡물가격은 해외에서 선물이나 현물로 매입하여 해상운송되기 때문에 유가상승에 의한 운송료 상승의 영향까지 받아 선물가격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하여 국내에 부담을 주고 있다.

표 1 품목별기간별 운임포함가격 상승률 비교 (2008년 3월 기준)

단위: 달러/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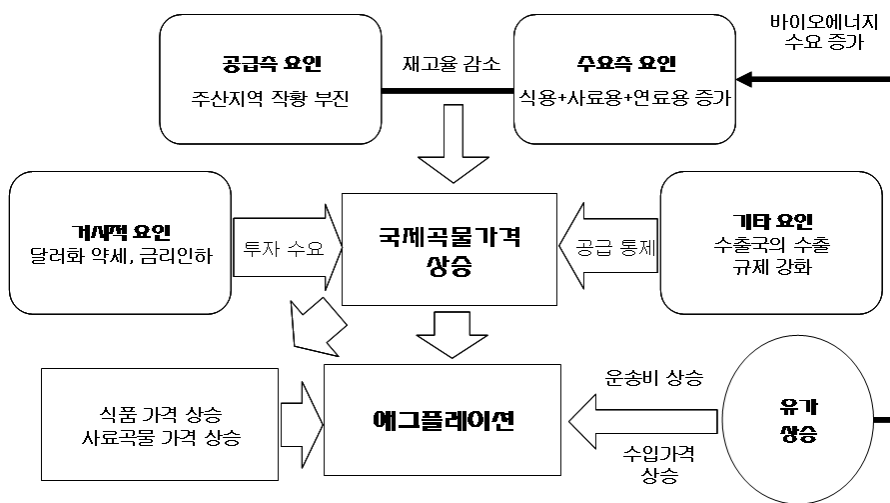
품목	2006.3(A)	2007.3(B)	2008.3(C)	B/A 상승률	C/B 상승률	C/A 상승률
옥수수	140.95	234.00	351.59	66.0	50.3	149.4
대두	263.76	344.90	680.47	30.8	97.3	158.0

자료: 한국사료협회

2. 애그플레이션의 원인

최근 세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애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곡물 가격 상승이다.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원인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한 재고율의 급격한 하락이며, 그 외에 최근 미국의 달러화 약세와 금리인하에 따른 투자펀드의 유입, 곡물수출국들의 수출규제와 수입국들의 비축용 매입 증가가 가격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주요 원인별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애그플레이션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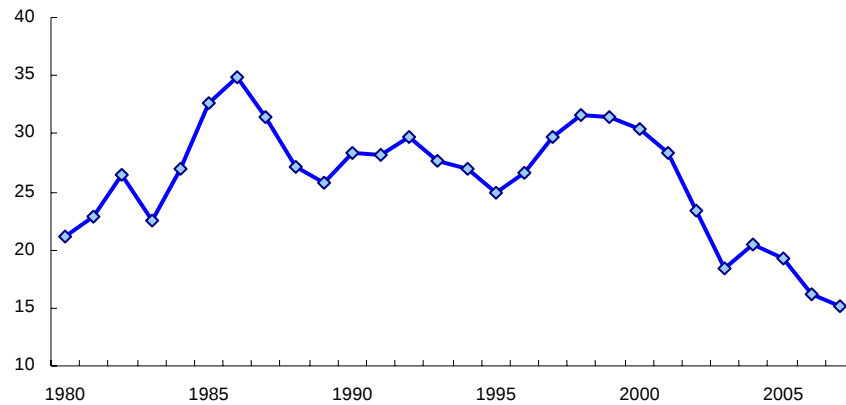
국제 곡물 재고율 하락

세계 곡물 수급은 1990년대 이후 생산 증가가 소비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여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곡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기상이변으로 곡물 생산의 변동이 커져 곡물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수급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부족분을 충당하여, 결과적으로 연도별 기말 재고량과 재고율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곡물 수급은 1990년대 이후 생산 증가가 소비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여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림 3 세계 곡물 재고율, 1980/81~2007/2008(전망치)

단위: %



주: 옥수수, 대두, 소맥, 쌀을 포함함.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fas.usda.gov/psd>)

세계 곡물 재고량은 1999/00년 최고치(58,732만 톤) 기록 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왔고, 2007/08년 재고량 31,396만 톤(전망치)은 1999/00년 대비 46.5% 감소한 수치이다. 재고율 역시 2000/01년 30.4% 이후 감소하여 2005/06년부터 20% 이하로 하락하였고, 2006/07년(추정) 16.2%, 2007/ 08년(전망) 14.9%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었다.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곡물수요 증가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인구 거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의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곡물을 포함한 식품 수요도 증가하게 되는데, 최근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인구 거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의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이들 국가가 과거와 같이 고성장을 지속할 경우,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곡물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곡물 소비에서 중국, 인도를 위시한 BRICs 국가들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표 2 세계 및 BRICs국가의 주요 곡물 국내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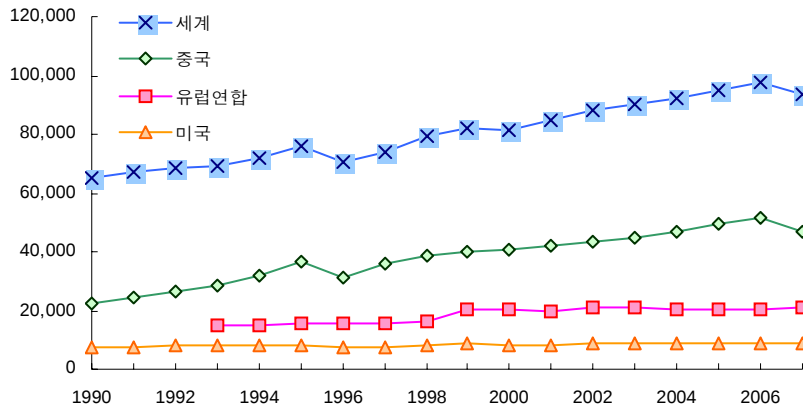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품목	옥수수 (Corn)					대두유 (Oilseed, Soybean)					소맥 (Wheat)				
국가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세계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세계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세계
2000/2001	34.5	120.2	12.0	1.9	608.3	24.7	26.7	5.3	0.4	171.8	9.5	110.3	66.8	35.2	582.8
2007/2008(전망)	42.5	148.0	15.7	4.0	770.8	34.7	48.3	9.2	0.8	236.0	10.5	100.5	75.9	38.2	617.6
연평균증가율	3.0%	3.0%	4.0%	11.2%	3.4%	4.9%	8.8%	8.3%	12.7%	4.6%	1.4%	-1.3%	1.80%	1.20%	0.80%

자료: FAS, USDA.

그림 4 주요국의 돼지고기 연도별 소비량

단위: 천 톤



주: 유럽연합의 경우 1998년까지 15개국, 1999년 이후는 27개국임.

자료: FAS, US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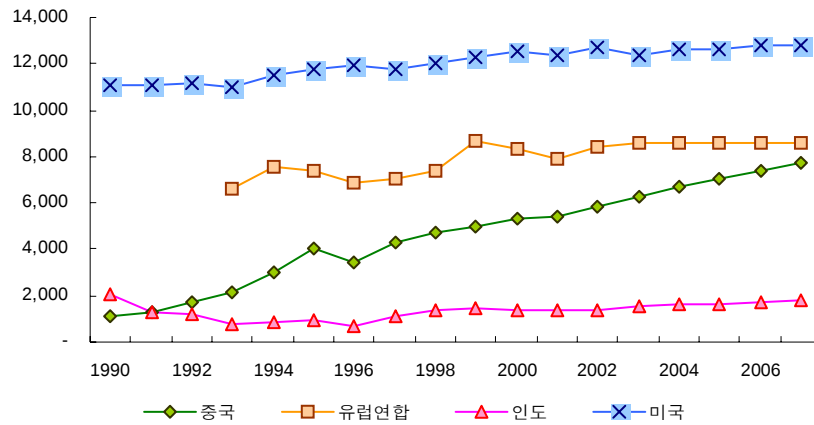
한편 이들 신흥시장의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로 육류 소비자가 증가함으로써 사료곡물 수요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육기준으로 1990년 22,573천 톤에서 2007년 46,690톤으로 연평균 4.4%나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세계 소비량은 61,218천 톤에서 93,839천 톤으로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국이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49.8%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중국의 사료곡물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49.8%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의 사료곡물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7년에는 돼지 소모성 질환의 피해로 사육두수와 소비량이 감소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생산량이 늘어나 소비량 역시 47,700톤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주요국의 쇠고기 연도별 소비량

단위: 천 톤



주: 유럽연합의 경우 1998년까지 15개국, 1999년 이후는 27개국임.
자료: FAS, USDA.

전 세계 쇠고기 소비량은 1990년 49,193톤에서 2007년 52,540천 톤으로 연평균 0.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중국의 쇠고기 소비량은 1,101천 톤에서 7,756천 톤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2.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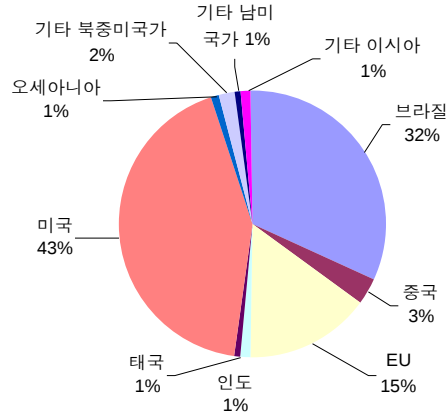
전 세계 쇠고기 소비량은 1990년 49,193톤에서 2007년 52,540천 톤으로 연평균 0.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중국의 쇠고기 소비량은 1,101천 톤에서 7,756천 톤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2.2%나 된다.

일반적으로 돼지고기와 쇠고기 1kg 생산을 위해 사료곡물이 각4kg, 8kg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류 소비 증가는 곡물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류 생산에 필요한 사료곡물 수요를 크게 증가시켜 곡물 가격을 상승시킨다.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바이오연료 생산의 경제성이 개선되고,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바이오 연료 생산을 장려함에 따라 바이오 연료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추정량 기준으로 주요 바이오연료 생산국은 미국, 브라질, EU, 중국 등이다. 미국은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합하여 전 세계 바이오연료의 43%를 생산하였고, 그 다음으로 브라질, EU가 각각 32%, 15%를 생산하였다. 미국은 옥수수,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주원료로 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고, 유럽연합은 대두 등을 주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

그림 6 국가별 바이오연료 생산 비중(2007년)



자료: FO Licht; USDA

표 3 주요국의 바이오연료 생산량(2007추정)

단위: 백만 갤런(gals.)

국가	에탄올	바이오디젤
브라질	4966.5	64.1
캐나다	264.2	25.4
중국	422.7	29.9
EU	608.4	1731.9
인도	105.7	12
인도네시아	0	107.7
말레이시아	0	86.8
태국	79.3	68.8
미국	6498.7	444.5
합계	12945.5	2571.1

주: 1갤런(gals.)은 3.79리터임.

자료: FO Licht; USDA

옥수수는 용도가 다양하여 바이오에탄올 생산원료로의 사용 증가가 다른 부분에도 큰 파급영향을 미친다.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최대 생산국인 미국은 1990년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양이 8.9백만 톤으로 미국 내 옥수수 소비량의 6%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2007년(추정)에는 81.3백만 톤으로 비중이 30%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2012년까지 75억 갤런의 바이오연료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치는 2007년 추정치인 65억 갤런보다 15.4% 증가한

1990년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양은 89백만 톤으로 미국 내 옥수수 소비량의 6%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2007년(추정)에는 813백만 톤으로 비중이 30%에 이르고 있다.

양으로 앞으로도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옥수수가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미국의 옥수수 용도별 사용량(1990~2007)

단위: 백만 톤

연도	에탄올	식품, 종자 및 기타	사료	수출	합계
1990	8.9	27.3	117.1	43.9	197.1
1995	10.1	31.3	119.2	56.6	217.1
2000	15.9	33.8	148.4	49.3	247.4
2005	40.7	35.0	156.3	54.2	286.3
2006	53.8	34.8	142.2	54.0	284.8
2007(추정)	81.3	34.4	151.1	62.2	3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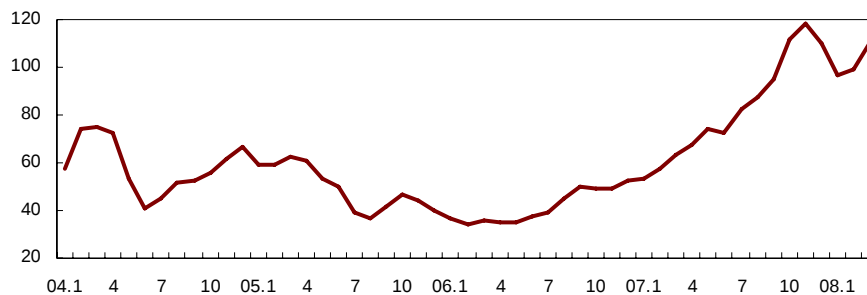
주: 표시된 연도는 미국의 마케팅 연도로 전년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를 의미함.
자료: USDA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곡물 생산 및 운송비용 증가

곡물 생산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의 투입재 및 농기계 등은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를 소비한다. 데이비드 피멘텔 등은 옥수수 1부셀 당 0.33갤런의 석유가 소비된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를 환산하면 옥수수 100kg 생산에 약 5리터의 석유가 소비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가 상승은 곡물 생산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해상 운임 상승을 통해 곡물 수입국의 수입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옥수수 1부셀 당 0.33갤런의 석유가 소비되는데, 이를 환산하면 옥수수 100kg 생산에 약 5리터의 석유가 소비되는 것이다.

그림 7 해상운임 추이



주: (1) 2008년 3월 5일 기준.

* William Coyle, The Future of Biofuels: A Global Perspective, Amber Waves, Vol. 5, Issue 5, USDA ERS, Nov. 2007.

* David Pimentel, Paul Hepperly, James Hanson, David Douds, and Rita Seidel, Environmental, Energetic, and Economic Comparisons of Organic and Conventional Farming Systems, BioScience 55, no 7, July 2005.

(2) 겔프만 출발 기준.
 자료: 한국사료협회

곡물 수출국의 수출 규제 강화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곡물 수출국들은 자국의 식품 가격 상승 억제 등을 목적으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고, 반대로 수입국들은 자국에 필요한 곡물의 확보를 위해 수입을 촉진하고 있다.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국제 곡물시장에서의 교역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공급물량의 감소는 현재의 가격 상승 추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수입 곡물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곡물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개발 국가들일수록 이러한 영향에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된다.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국제 곡물시장에서의 교역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표 5 주요 국가 곡물 수출 규제 사례(2008.3.19 현재)

국가	종류	조치 내용	적용기간
러시아	보리, 밀	수출세(밀 40%, 보리 30%)	07/11/12~08/4/30
	곡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 수출 금지	08/2/18~08/4/30
중국	곡물, 제분(84 품목)	수출세 환급 취소	07/12/20~
	곡물, 제분(57 품목)	수출세	08/1/1~12/31
	곡물, 제분	수출할당	08/1/1~
아르헨티나	밀, 옥수수, 대두	수출세	07/11/8~
인도	밀, 밀 제품	수출금지	07/2/9~(무기한)
	밀	최저생산자가격 인상	08/09년도의 밀
	밀	민간수입분 관세철폐	무기한
우크라이나	밀, 보리, 옥수수	수출할당	07/11/1~08/3/31
카자흐스탄	밀	수출량의 20%를 국내 판매	07/10월 상순~
	밀	수출세 부과(110만 부셀)	2008/2/25~
세르비아	밀, 옥수수	수출금지	07/8/4~08/3/5
	소맥분, 분쇄옥수수	수출할당	07/11/4~08/3/5
브라질	밀	1백만 톤까지 관세	08/2/6 공포
파키스탄	밀, 소맥분	수출세	07/9~
EU	곡물(일부 제외)	관세 철폐	08/1/11~6/30
호주	사료곡물	수입허가(긴급조치)	07/11 공포

자료: 일본농축산수급안정기구, 「축산의 정보(해외편)」, 2008년 2월호

투자 자본의 유입

최근의 곡물 가격 급상승은 앞서 열거한 이유 외에 투자 자본 유입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CBOT)는 금년 2월 초 연일 가격제한폭까지 뛰는 밀 가격 안정을 위해 2월 11일 일일 가격제한폭을 30센트에서 60센트로 확대한 바 있다. CBOT의 월평균 거래량을 보면, 소맥은 2003년 582,148건이었으나 2007년

CBOT의 월평균 거래량을 보면, 소맥은 2003년 582,148건이었으나 2007년 1,663,772건으로 연평균 30.0%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옥수수는 연평균 30.3%, 대두는 15.3% 증가하였다.

1,663,772건으로 연평균 30.0%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옥수수는 연평균 30.3%, 대두는 15.3%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 경기 악화에 따른 금리 인하와 금융 시장의 악화로 인해 자금이 곡물 등 원자재 상품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 불안 등으로 미국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식, 채권 등 달러화 자산 역시 곡물 등 상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해소하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역시 이 같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기 전에는 투자 자본의 상품 시장 유입에 따른 가격 상승과 변동 확대 현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 모간스탠리 등에서는 앞으로도 상품 시장으로의 투자 자금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3. 애그플레이션 파급 영향

국제적인 영향

대표적인 수출국인 미국은 2007년 순농업소득이 870억 달러로 과거 10년간 평균에 비해 50%나 증가하였다.

애그플레이션 현상은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국제곡물가격 급등은 미국, 브라질, 호주, 중앙아시아 등 곡물 수출국들의 곡물생산농가들에게 상당한 소득 증대를 가져다주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수출국인 미국은 2007년 순농업소득이 870억 달러로 과거 10년간 평균에 비해 50%나 증가하였다.

반면 국제곡물가격 급등은 사료곡물 가격을 상승시켜 축산 농가들에게 생산비 부담을 주어 수익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돼지와 우유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2006년간 각각 55.0%와 59.8%였으나 사료비가 상승하여 2007년에는 각각 60.4%와 62.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용 증가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광열비 상승과 노력비 상승 요인도 작용하였으나 사료비 상승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결과 비육우 두당 순수입율(순수입/조수입)이 같은 기간 동안 19.6%에서 2.8%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돼지의 순수입률은 12.1%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우유의 순수입률은 9.4%에서 6.0%로 감소하였다.

표 6 미국 가축 사육 수익과 비용 변화

구분		2002~2006	2007	2008
소 (달러/두)	조수입	562.89	573.02	548.26
	생산비	452.72	539.04	533.01
	-사료비	128.31 (28.3)	152.27 (28.2)	143.41 (26.9)
	-기타	324.41	386.77	389.60
	순수입	110.17 (19.6)	33.97 (5.9)	15.25 (2.8)
돼지 (달러/cwt)	조수입	45.97	48.20	45.12
	생산비	40.41	47.04	54.97
	-사료비	22.21 (55.0)	25.76 (54.8)	33.18 (60.4)
	-기타	18.20	21.28	21.79
	순수입	5.56 (12.1)	1.16 (2.4)	-9.84
우유	조수입	14.21	19.15	17.38
	생산비	12.87	15.35	16.35
	-사료비	7.70 (59.8)	9.56 (62.3)	10.21 (62.4)
	-기타	5.17	5.79	6.14
	순수입	1.34 (9.4)	3.80 (19.8)	1.04 (6.0)

주: 사료비의 ()안은 생산비 대비 사료비 비율, 순수입의 ()안은 조수입 대비 순수입 비율임.

자료: FAPRI, US Baseline Briefing Book - Projections for agricultural and biofuel markets, FAPRI-MU Report #03-08, March 2008.를 기초로 일부 계산

곡물 가격 상승은 식품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가계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최종소비자 식료품의 생산자가격지수(도매가격지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곡물·축산물 가격이 2005년 3월 이후 2007년 5월까지 30% 이상 오르고 생산자가격지수가 2006년 1.5% 수준에서 2007년에 4%까지 상승하였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식품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부국과 빈국 사이에 극단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식료품 구입비 비중이 1/10에 불과하여 식품가격이 올라도 전체 물가에 큰 효과를 주지 않는데 비해, 빈국의 경우 식료품이 소비자물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빈국 국민들의 식품구매가 어려워져 기아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국내 파급 영향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수입량은 2000년 이후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액은 2001년 이후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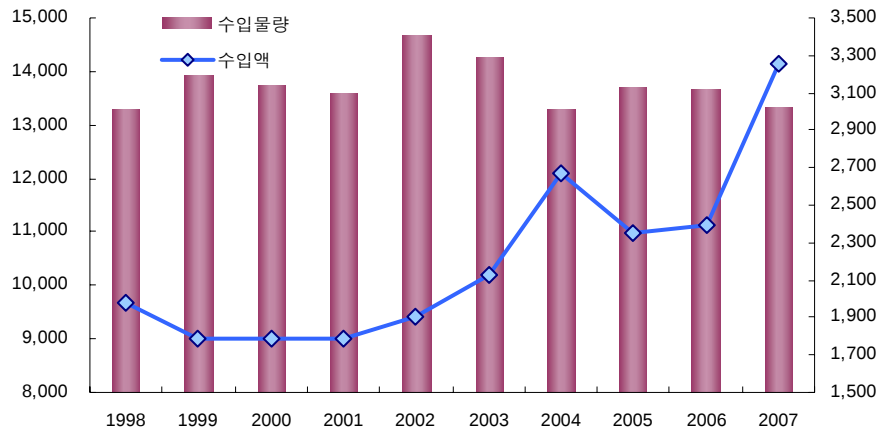
미국의 곡물·축산물 가격이 2005년 3월 이후 2007년 5월까지 30% 이상 오르고 생산자가격지수가 2006년 1.5% 수준에서 2007년에 4%까지 상승하였다.

* "Nuns mug Orphan!", economist.com, May 6th 2007.

다. 2005년 이후 수입물량 증가에 비해 가격 상승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 곡물 단가 급등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2007년 곡물 수입액 비중은 옥수수 56.3%, 밀 26.3%, 대두 13.2% 등의 순으로 높다.

그림 8 연도별 주요 곡물 수입 실적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주: 주요 곡물에는 옥수수, 대두, 밀, 쌀 포함(쌀은 MMA 물량).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옥수수, 밀, 대두 모두 2006~2007년 재고물량 감소와 수입 물량 증가로 자급 수준이 다소 하락하였다. 현재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문은 축산농가와 식품산업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자급률이 100%에 근접한 쌀과 서류를 제외하면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입 물량 증감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옥수수, 밀, 대두 모두 2006~2007년 재고물량 감소와 수입 물량 증가로 자급 수준이 다소 하락하였다. 2007년(전망치) 기준으로 전체 88 곡물 수요량 20,334천 톤 중 사료용 수요량이 9,829천 톤(48.3%)으로 가장 많았고, 식용 5,305천 톤(26.1%), 가공용(19.7%) 순이었다. 사료용 곡물 중 옥수수(7,459천 톤)가 차지하는 비중은 75.9%로 압도적으로 높다.

현재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문은 축산농가와 식품산업 분야이다. 축산농가는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식품산업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량 확보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업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의 가격을 고르게 상승시키거나 비용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 Ephraim, Leibtag, Corn Prices Near Record High, But What About Food Costs?, ERS USDA, 2008.2.

표 7 우리나라 주요 양곡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구분		2006년(잠정치)				2007년(전망치)				
		합계	밀	옥수수	대두	합계	밀	옥수수	대두	
공 급 량	전체		21,953	4,085	9,459	1,410	22,437	3,705	10,012	1,766
	전년이월		2,507	500	766	73	2,324	462	627	66
	생산량		5,434	6	73	183	5,275	6	65	157
	수 입 량	식용	4,927	2,170	1,889	305	5,127	2,222	1,973	330
		사료용	9,085	1,409	6,731	849	9,711	1,015	7,347	1,213
		소계	14,012	3,579	8,620	1,154	14,838	3,237	9,320	1,543
수 요 량	전체		19,622	3,623	8,832	1,344	20,334	3,312	9,500	1,596
	식량		5,379	1,226	70	101	5,305	1,245	61	102
	가 공 용	소계	3,910	804	1,931	337	3,999	812	1,951	326
		식용	1,601	727	133	337	1,629	737	140	326
		양조용	539	45	87	-	593	42	92	0
		기타	1,770	32	1,711	-	1,777	33	1,719	0
	사료		9,311	1,538	6,809	888	9,829	1,135	7,459	1,155
	종자		181	-	-	-	63	0	0	4
	기타		841	55	22	18	1138	120	29	9
	곡물 자급도 (사료 포함)		28.0	0.2	0.8	13.6	27.8	0.3	0.7	9.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7;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 2008.2.

애그플레이션의 영향은 소비자·생산자 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2007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전년도보다 상승하였고, 품목별 동향을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이 전년도의 하락 추세(-0.1%)에서 상승 추세(1.9%)로 전환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의 영향으로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인상된 것은 곡물 가격이 최근 2년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가격이 급등한 점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

2007년 말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 상승 추세는 2008년에도 지속되고 있어, 초반 두 달 만에 전년 상승률 대비 0.8% 상승하였고 곡물 가격은 3.5%나 상승하였다. 가공식품과 외식비용 상승률도 전년 수준에 이미 근접하였으며, 축산물 가격도 전년도의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2008년 두 달 만에 전년 상승률 대비 0.8% 상승하였고 곡물 가격은 3.5%나 상승하였다.

* 한국은행, 2007년 중 물가동향 분석, 2008.1.

표 8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물가지수	전체	농축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가공 식품	외식
				곡물			
2005년 평균/ 2004년 평균	2.8	1.9	0.5	-3.1	5.5	5.1	2.4
2006년 평균/ 2005년 평균	2.2	-0.1	-0.8	-6.0	1.2	1.4	1.9
2007년 평균/ 2006년 평균	2.5	1.9	4.2	1.5	-2.9	2.9	1.9
2008년 평균/ 2007년 평균	2.1	0.8	-0.4	3.5	1.8	2.4	1.5

주: 2008년은 1, 2월만 해당.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각년도.

2006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농축수산물 평균 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품목 중에는 곡물 또는 곡물을 원료로 하는 품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밀가루와 대두를 이용하는 제품의 경우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200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식품 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추정한 결과 품목별 영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밀의 국제가격이 30%, 50%, 100% 변동하는 경우 가장 영향이 큰 부문은 제분으로 17.8%, 29.7%, 59.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밀가루를 주원료로 이용하는 빵, 과자 및 국수류로 1.4%, 2.3%, 4.5%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정미, 정맥, 제당은 밀 가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콩의 국제가격이 30%, 50%, 100% 변동할 때 유지 및 식용유 가격은 각각 7.4%, 12.3%, 24.6% 상승하여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 가격 변동에 따른 유지 및 식용유의 가격 변동 폭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콩 이외에도 옥수수, 해바라기 등의 다양한 원료가 이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지 및 식용유 외에 두부, 장류 등 기타 식료품도 0.7%, 1.2%, 2.3%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30%, 50%, 100% 변동할 때의 파급영향은 전분 및 당류 부문에서 10.9%, 18.2%,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분 및 당류 부문이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문인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등은 옥수수가 원료인 사료 가격 인상에 의해 간접적인 파급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 김철민·이진면, 애그플레이션이 식품시장과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발표 자료 재구성, 2008.3.19

종합적으로 볼 때, 밀, 콩, 옥수수 가격이 동시에 30% 변동하는 경우에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약 0.2%이고 100%일 경우 0.7%의 변동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축산 부문 중 양돈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인상은 생산비·경영비를 인상시켜 축산농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사료비, 가축비, 산지가격 등의 가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나, 비육돈의 수익성은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돼지 가격 하락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다. 기관별로 시산한 비육돈 경영수지 결과는 <표 9>와 같다. 농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영향으로는 사육두수 감소 및 농가 폐업 증가, 종돈장 경영 악화, 돼지고기 품질 저하 등이 제시되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인상은 생산비·경영비를 인상시켜 축산농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표 9 비육돈 경영수지 시산 결과 비교

단위: 원/100kg

구분	06년 농관원 자료 이용 추정 (08년 기준)	양돈협회 (08년 기준)	M사 (08년 기준)	KREI 농가조사 (08년초 조사)
산지가격 및 조수입(A)	192,270	192,270	219,182	192,270
생 산 비	가축비	43,183	54,580	53,542
	사료비	119,189	163,000	130,985
	인건비	기타에 포함	기타에 포함	29,182
	약품비	기타에 포함	기타에 포함	14,000
	분뇨처리비	—	—	16,364
	기타	44,033	41,247	32,000
	계(B)	206,405	242,191	261,545
순수익(A-B)	-14,135	-49,921	-42,364	-37,066
비 고	1) 폐사율 반영 여부 불분명 2) 분뇨처리비 타 항목에 분산 포함	1) 농관원 자료를 기초로 사료비만 재산정함. 사료비에 폐사돈 사료 급여 비용을 추가시킴.	1) 가축비 산정 여부 불분명 2) 사료비에 번식돈 사료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3) 생산비에서 금융이자비용 제외	1) 표본 수 적음. 2) 간이조사

자료: 허덕·김현중,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에그플레이션의 농식품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정책 토론회, 2008.3.19

* 허덕·김현중,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에그플레이션의 농식품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발표 자료 재구성, 2008.3.19

4. 애그플레이션 전망

2007/08년 국제곡물 수급 전망*

기 말 재 고 율 은 2006/07년도보다 1.6% 포인트 하락한 14.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20억 8,409만 톤으로 전망되었고, 쌀을 포함한 소맥, 옥수수 등 대부분 곡물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9.4%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3,673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4억 1,939만 톤으로 전년보다 1.6%인 3,802만 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7/08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3.0% 증가한 21억 543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2,134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2007/08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6.8% 감소한 3억 140만 톤으로 전망되었고, 기말재고율도 2006/07년도보다 1.6% 포인트 하락한 14.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10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률	
			2008.2	2008.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2,016.44	1,992.67	2,076.13	2,084.09	4.6	0.4
공급량	2,420.10	2,381.37	2,412.86	2,419.39	1.6	0.3
소비량	2,031.40	2,044.64	2,105.12	2,105.43	3.0	0.0
교역량	253.43	255.64	255.26	256.47	0.3	0.5
기말재고량	388.70	336.73	307.74	313.96	△6.8	2.0
기말재고율	19.1	16.5	14.6	14.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5, March, 11, 2008.

현재 수준에서 조정 과정을 거치는 다소 하락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과거의 안정적인 가격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국제 곡물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2006년까지의 상황과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준에서 조정과정을 거치면 다소 하락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과거의 안정적인 가격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가격 급등은 재고 감소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미국의 달러화 약세와 금리인하로 국제적인 투자자금인 선진국의 헤지 펀드와 개도국의 국부펀드들이 곡물투자로 몰려 새로운 시장수요가 발생하고, 곡물 수출국들은 곡물 수출을 규제하여 시장공급을 줄이는 반면 수입국들은 곡물 비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 WASDE-456, March 11, 2008.

축을 위해 수입을 서둘러 시장수요를 확대하는 요인들이 가세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투자 자본의 유입이나 수출국의 규제 조치 등은 비교적 단기간에 조정이 가능한 변수이지만, 수급 구조 변화,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등의 변수는 보다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곡물가격 전망 결과 비교에 의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비관적 시나리오(10년 후 국제유가 100\$ 상회, 바이오연료 사용이 당초 각국에서 계획한 것보다 10% 정도 높은 시나리오)에 의해 전망한 가격이 2007년 OECD-FAO에서 전망한 가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008년 3월 FAPRI에서 전망한 가격 또한 옥수수과 밀에 대해 OECD-FAO에서 전망한 가격보다 높게 예측되었다. 세 연구기관의 전망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국제 곡물가격이 향후 10년간은 최소한 2006년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에서 변동할 것이라는 것이다.

표 11 국제 곡물가격 전망 결과 비교

구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ECD-FAO	FAPRI
주요 가정	- 중립적, 비관적 시나리오 설정 * 국제 유가 * 세계 경제성장률 * 곡물 수요 변화 * 바이오연료 생산 * 환율 변화 전망 * 국내 사료가격 변화	- 세계 인구성장률 둔화 - 미국 경기침체 단기간 내에 회복 - 개도국 식품 수요 및 소비패턴 변화 - 원유가격 과거보다 높은 수준 유지 - EU 확대, 바이오에너지 최초 고려	- 주요국 용자단가, 관세 수준, TRQ 물량, 수출 관세 부과 등 농업정책 파급효과 반영 - 경제성장률, 환율 전망 등 반영
전망치 (2016/17)	옥수수	137달러/톤(중립적) 173달러/톤(비관적)	138달러/톤
	대두	328달러/톤(중립적) 383달러/톤(비관적)	300달러/톤
	밀	374달러/톤(중립적) 489달러/톤(비관적)	183달러/톤
최근 특이사항	- 미국의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 증대 - 원유가격 상승 지속 전망(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 주요 수출국의 곡물수출관세 부과 등 교역 제한 조치 강화		

주: (1) FAPRI는 2008년 2월 위 전망치를 보완한 미국 baseline 발표.

(2) OECD-FAO 전망에서 옥수수는 No. 2. Yellow price, FOB USA, Gulf port 기준, 유지작물은 유지종자가격의 가중평균, 소맥은 2등급 HRW 기준.

(3) FAPRI 전망에서 옥수수와 소맥은 FOB USA 기준, 대두는 CIF 로테르담 기준.

자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국내농업 파급영향"(김병률·이명기, 2007.12.4일 국제곡물가격 상승영향과 대응전략 심포지엄 발표자료), 농업전망 2008, 2008.1.

(2)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 2007.

(3) FAPRI: 2008 US Baseline Briefing Book. 200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 결과가 다른 전망 결과에 비해 높은 이유는 특히 모델에 포함되는 유가, 환율 등 가정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OECD-FAO 전망 모형은 국제에너지청(IEA)의 「원유가격 전망 2006」을 이용하여 원유가격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 곡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추정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FAPRI 역시 원유 가격이 향후 10년간 50달러/배럴 이상을 형성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을 비교적 낮게 잡았다. 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치는 원유 가격이 2007년 수준을 유지(중립적)하거나 2010년 이후 100달러를 상회(비관적)하는 경우를 가정함으로써 비교적 최근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향후 수출국들의 교역 제한 조치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곡물 상품시장이 안정화되면, 실제 가격은 각 연구기관이 제시한 장기 전망치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국제 곡물가격은 현재와 같이 급등한 상태를 지속하거나 조정과정을 거쳐 하락하지만 적어도 과거의 안정된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상태에서 새로운 변동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곡물가격 전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곡물가격상승이 구조적인 소비증가에 있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생산 증가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은 현재와 같이 급등한 상태를 지속하거나 조정과정을 거쳐 하락하지만 적어도 과거의 안정된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상태에서 새로운 변동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곡물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계지, 개간지들이 늘어나 생산이 늘어날 것이며 소비 측면에서도 식용과 사료용 소비가 일부 대체되거나 억제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대응 방안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의한 애그플레이션 대응방안은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과 축산 관련 대응방안, 식품 관련 대응방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식량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주식인 쌀을 비롯하여 곡물의 안정적인 국내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재검토하여 정책의지가 담긴 자급률을 재설정하는 한편, 실제로 세부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세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급률은 국내 요인도 있지만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해외요인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정책 의지만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목표치 설정은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의 강력한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재검토하여 정책의지가 담긴 자급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 원유가격이 2012년 55달러/배럴까지 하락, 2016년 60달러/배럴 수준에서 유지

이와 함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식품개발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나 이와 함께 증산된 식량의 소비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쌀은 곧 밥이라는 고정관념을 허물고 입맛이 다양화된 청소년들을 쌀의 주 고객으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쌀 가공식품 개발과 쌀의 다양한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가공 및 소매업계 쌀을 이용한 새로운 시도들이 작은 성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확대·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2012년부터 보리 수매가 중단될 예정이므로 기존의 보리 생산 농가들이 밀 생산에 참여할 유인이 존재한다. 한편, 최근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들어 가격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 우리밀의 주 생산 예정지에는 우리 밀 전문도정소를 설치하여 우리 밀을 안정적으로 상품화하고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유통 및 판매 전략을 통해 소비와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만일의 식량위기 사태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곡물을 식량안보용으로 추가 확보하여 비축해야 하며 동시에 국제 곡물 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공유와 함께 위험요인 발생 시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제곡물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이 요구된다. 세계적인 식량 수급과 가격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식량위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량의 곡물을 식량안보용으로 추가 확보하여 비축하는 한편, 국제곡물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12 애그플레이션 대응방안

곡물의 안정적 확보	축산대책	식품 관련 대책
- 식량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 구체화 -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식품 개발 확대 - 2모작 밀 생산 확대 - 식량안보 비축 확대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해외농업개발의 추진	- 축산농가 사료비 보조 - 사업업계 지원 정책 마련 - 조사료 생산 면적 확대 - 대체사료원료 개발 - 축산업 계열화와 광역 단위 브랜드화 - 사료곡물 관세 인하 조치(TRQ 물량 외 별도)	- 저소득층 소득보조 (푸드 스탬프) - 가공업계 보조를 통한 식료품가격 억제 - 식품소비자물가지수(Food CPI) 안정 발표

대외적으로도 해외에서 농경지를 확보해 유사시에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해외농업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제식량개발 차원에서 개발대상국들에 대해 농업개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호혜적인 계획’(win-win 전략)을 추진하되, 해당국들과 개발협력협약을 체결하여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곡물 수입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해외농업개발은 초기자본투자가 크고 성과가

* 밀 국내외가격차는 2002년 4.4배에서 2004년 3.8배, 2007년 1.7배로 축소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사회기반시설 개발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축산부문 대응방안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비 보조 및 사료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조사료포 조성, 사료원료 개발, 부존자원 활용 극대화, 축산업 계열화·규모화 등이 필요하다.

축산 부문과 관련해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비 보조 및 사료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료비 인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직접 보조하는 방안과, 사료업체의 원활한 곡물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계지, 이모작 농지를 활용한 조사료포 조성으로 수입 사료곡물 소비를 일부 대체하는 방안과 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료원료 개발 및 국내부존자원 활용의 극대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축산업 계열화·규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사료업체, 축산농가와 도축가공업체 간의 계열화를 강화하여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경영 안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식품부문 대응방안

푸드 스탬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대책, 식품가공업체 대한 지원 정책, 식품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발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품 부문 대책으로는 푸드 스탬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대책 실시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식료품가격 상승에 대응해 가격상승에 직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푸드 스탬프 등 소득보조대책을 실시하여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 지금보다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경우 추가 대책으로 곡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를 보조함으로써 곡물가격 상승이 식료품 가격상승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소비자물가지수(Food CPI) 산정 발표도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신선 농축산물을 포함하여 가공식품, 외식 등 농·식품과 관련된 물가지수를 별도로 산정 발표하여 농식품 관련 정책 및 물가관련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애그플레이션을 견인하고 있는 국제 곡물 가격상승은 국내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국내에서 마련하는 것은 애그플레이션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그 원인을 없애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따라서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세계적인 곡물 생산 증대, 바이오연료용 곡물 사용에 대한 조정, 수입의존도가

* 2008년 3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과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계획 발표

높은 후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식량원조, 곡물 수출규제나 비축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보도자료, 2008.3.25.
- 기획재정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 보도자료, 2008.3.25.
- 김병률·이명기, 「국제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국내농업 파급영향」, 국제곡물가격 상승영향과 대응전략 심포지엄 자료집, 2007.12.4.
- 김철민·이진면, 「국애그플레이션이 식품시장과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8.3.19.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7.
-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 2008.2.
- 일본농축산수급안정기구, 「축산의 정보(해외편)」, 2008. 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8」, 2008.1.
- 한국은행, 「2007년 중 물가동향 분석」, 2008.1.
- 허덕·김현중,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8.3.19.
- David Pimentel, Paul Hepperly, James Hanson, David Douds, and Rita Seidel. "Environmental, Energetic, and Economic Comparisons of Organic and Conventional Farming Systems." BioScience 55 No 7, Jul. 2005.
- FAPRI. US Baseline Briefing Book - Projections for agricultural and biofuel markets. FAPRI-MU Report #03-08, Mar. 2008.
- Leibtag, Ephraim. "Corn Prices Near Record High, But What About Food Costs?" Amber Waves, ERS USDA, Feb. 2008.
- "Nuns mug Orphan!", economist.com, May 6th 2007.
- OECD and FAO,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 2007.
- William Coyle. "The Future of Biofuels: A Global Perspective." Amber Waves, ERS-USDA, Nov. 2007.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 WASDE-456, Mar. 2008.